

##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3

207 콘질리아운동과 교회개혁  
이상규 (고신대 교회사, 본원 원장)

## 콘질리아운동(Conciliar Movement)과 교회개혁

—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중세 후기라고 볼 수 있는 13세기 이후 교회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교황청의 타락이 그러했다. 교황청은 교회에 대한 지배만이 아니라 세속권력을 장악하였고 교황은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다. 이런 배경에서 전권(全權, Plenitudo Potestatis)사상이 대두되었다. 교황의 군주적 통치권을 말하는 이 용어는 13세기 문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문서가 1274년 리용(Lyons)의 제2차 공의회에서 선포된 '신앙고백'이었다. 이 신앙고백은 교황 그레고리 10세와 동방지역의 황제 미카엘 8세(Michael VIII)가 라틴교회와 헬라교회 사이의 항구적인 연합을 위한 기초로 마련된 신앙고백이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와 함께 교황의 우월권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인노첸트 3세(Innocent, III, 1198-1216)는 성과 속, 양 영역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교황으로서 실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자신은 지상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권은 세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는 아래지만 모든 인간보다는 높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primus et summus magister et princeps ecclesiae(최고최상의 교회 교사이며 우두머리)라고 했고, 그 근거로 마16:18, 요1:42, 20:23, 고전4:4을 들었다. 그래서 자신은 지상의 어떤 법정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사상의 배후에는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황 무오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교황의 무오성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1864년이었지만, 교황에 대한 권위와 위엄은 교황의 무오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황은 지상에서 절대권을 지니며 그 어떤 것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큐리얼리즘(curialism)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런 교황의 절대권력 때문에 교황직을 두고 격렬하게 투쟁하였고, 교황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13세기 교황의 전권사상과 함께 교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으나 14세기 이후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교황청은 도전에 직면하였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70년간 로마의 교황청은 불란서 왕이 통치하는 아비뇽으로 옮겨가야했던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이 70년을 흔히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1378년부터는 두 사람의 교황이 나타나 각각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등 교황청의 대분열이 1417년까지 계속되었다. 교황청의 분열이란 추기경단이 분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40년을 '교황청의 대분열'이라고 말한다.

교황청이 분열되자 교회의 부패는 가중되었다. 교황청 분열로 교황청의 재정은 고갈되었고, 교권대립이 심화되자 재정적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다. 각종 징세제도가 만들어졌고, 도덕적 타락이 뒤따랐다. 교황은 물론이지만 성직자들의 취첩과 축첩은 일반화되었다.

이제 교회와 교황은 권위를 상실했다.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할 쇄신기능을 상실했다. 절대 권력인 교황청이 분열했는데 누가 이를 바로 잡는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교황의 절대권을 반대하고 교회 회의가 교황보다 우선하다며 주장하고 교회회의를 통해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시도를 '콘질리아 운동'(Conciliar movement)이라고 부른다. 교회회의 운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황권에 대한) 교회회의의 우선주의로서 큐리얼리즘에 대한 회의(懷疑)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이 교회

개혁과 쇄신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가장 오래된 교회 회의는 325년의 니케아 회의인데, 당시 교회가 당면한 교리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회 회의를 소집했듯이 그 시대도 전체교회 회의를 통해 당면한 교회 문제를 쇄신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일에 앞장선 주도적인 세력이 파리대학 교수들이었다. 그 첫 인물이 파리대학 교수였던 존(John of Paris, c.1250-1306)이었다. 존 퀴도르트(John Quidort)라고도 불린 그는 저명한 설교가이기도 했다. 자신의 저서 『왕권과 교황권에 관하여』(*De potestate regia et papali, On Royal and Papal Power*, 1302)에서 교회와 국가는 공히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각각에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황의 절대권에 반기를 들었고, 교황만이 교리를 확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교황이라도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면 교회회의에 의해 폐위되어야 한다고 했다.

파두아의 마르실리오(Marsilio of Padua, c.1275-1342) 또한 교회회의론자였다. 이탈리아 파두아 출신인 그는 의학을 공부했던 정치 철학자였다. 1313년에는 파리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324년 『평화의 수호자』(*Defensor Pacis, Defender of the Peace*, 1324)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반교황적 성격이 강해 이 책의 저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년 후인 1326년이었다. 그는 이 책 때문에 파리를 떠나야 했고 불란서 왕 루이스 4세의 법정에 서기도 했다.

마르실리오의 이 책은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권에서는 국가철학을, 2권에서는 교회의 신학을, 3권에서는 이상의 전체를 정리하였다. 마르실리오의 사회 통합 요소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라고 보았고, 세속 군주의 기능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법을 제정하고 공동의 복지를 감독하고 군주를 선택할 권리는 국민(민중)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군주가 법을 어겼을 때는 민중이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16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말하는 일종의 저항권 사상을 이미 피력하고 있

다. 또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서구교회에서 어거스틴에 의해 주창되어 왔던 소위 '정의에 근거한 경우에' 국가권력을 통해 이단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단 박멸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한 이론(*Compelle intrare*)을 반대한 것이다.

이 책 제2권에서 교황청이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세속을 통치하려고 함으로써 세계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진단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속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때 교황의 이런 권력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의 교계(敎階)제도도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제도라고 했다. 교황의 세속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말할 때 흔히 '콘스탄틴 기증서'까지 소급하여 이 문서에 근거하여 주장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세속에 대한 교황의 지배는 교회의 본질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행사해야 하는 유일한 권력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마르실리오는 공의회, 곧 교회회의(*general council*)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보아 큐리얼리즘에 반대했다. 마치 세속 통치자는 신민에 의해 권세를 부여받는 것처럼, 교황은 신자의 총의에 의해 그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말하면서 신자의 총의인 교회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았고, 그는 종교개혁시대 정치 이론의 선구적 주창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마르실리오의 책은 1517년에 다시 출간되었는데, 1559년 금서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책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윌리엄 오컴(William of Ockham, c.1280-c.1349)은 존이나 마르실리우스보다 더 발전된 교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대화』(*Dialogus*, 1343)에서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동일한 인간이며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교회회의는 이단에 빠진 교황은 폐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

히 흥미로운 점은 오컴은 교황이나 교회회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성경만은 무오하다고 주장했고, 교회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주장한 점도 흥미롭다.

또 니콜라스 쿠자누스(1401-1464)<sup>1)</sup>는 바젤회의에서 교황에 대한 공의회 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De Concordantia Catholica* 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회의의 권위를 우선시 하여 교회 개혁을 시도한 이들을 콘질리아주의자들(*Conciliarist*)라고 부른다. 이들은 비록 당시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교회 쇠신론자들이었다.

교회회의는 1409-1439년까지 4대 회의가 있었는데 1409년의 피사회의, 1414년에서 1418년까지의 콘스탄츠회의, 1431년에서 1449년까지의 바젤회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1438년에서 1439년까지 모였던 피렌체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는 바젤회의를 반대한 교황파의 회의였다). 이들 회의는 3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데, 교황청분열의 해결, 교회내부의 개혁, 그리고 이단 처리문제가 그것이다. 교회분열에 관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첫째, 두 교황을 사퇴시키고 제3의 교황을 선출하는 안, 둘째, 두 교황 중 진비(眞非)를 가려 처리하는 안, 셋째,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안이 그것이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결국 파리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체 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분열된 양 교황을 지지하는 대주교들은 1408년 레그혼(Leghorn)에 모여 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417년에는 교황청의 분열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은 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중세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1) 니콜라스 쿠자누스는 독일 쿠사(Cusa) 출신으로 하이델베르크와 파우다에서 수학하고 1423년 쾰른에서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학자이자 추기경이었고, 새로운 학리사상을 발전시켰던 인물이다.